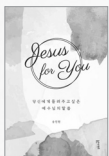


## בִּית־ספרים (책의 집)

###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

송민원 씀, 아드벤토



맞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히 사는 법과 찬란한 영광을 얻는 방법에만  
관심을 가지는 한 여러분은  
결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읽기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며, '아버지주일'로 예배합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배움주일 안내**: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  
오후 1시 30분, 소예배실
3.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훈(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스승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봅시다.

##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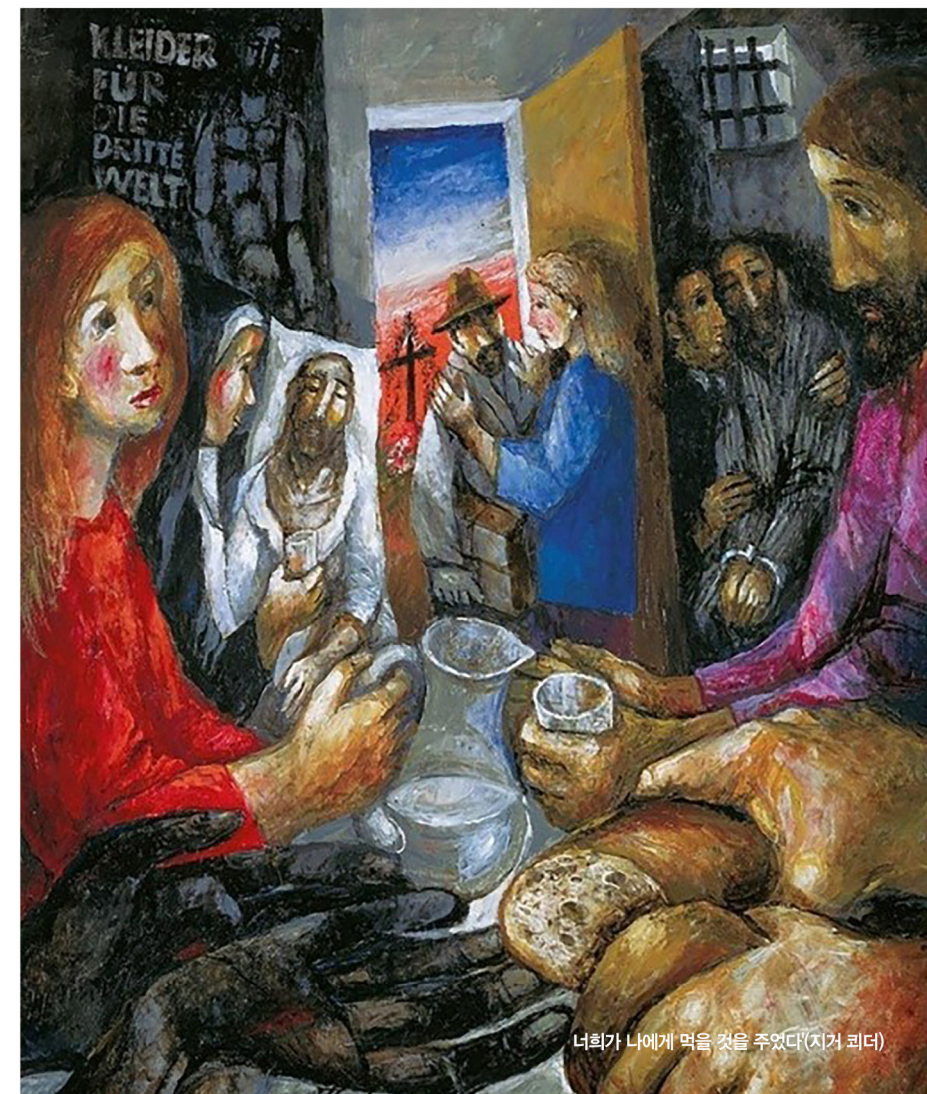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선교회	연 령
주일낮예배	오 전 11 시	본 당	아브라함	남 성 교 우
수요기도회	오 후 7 시	소 예 배 실	에 스 더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 예 배 실	드 보 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 전 9 시	소 예 배 실	마 리 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 전 9 시	청소년부실	한 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온라인 헌금계좌: 신한 061-691-7315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 산 교 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거 죄더)

제51권 19호

2025년 5월 11일(부활절 네 번째 주일)

###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주 일 예 배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 께
* 입 레 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시편 135:1-3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 광 송	446장(3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 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 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성 시 교 독	시편 23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 사 찬 송	578장(3절 후, 간주)
기 도	이기도 목사
*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0:25-28(신약 163쪽)
찬 양	아버이 날 사랑하사
말 씀 선 포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결단의 찬송과 기도	560장(2절 후, 간주)
봉 헌	함 께
성도의 교제	함 께
* 교제의 찬양	382장(2절)
* 축 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기도 - 민경오 장로

- \* 5월 안내위원 : 한행자, 이영미, 정미자, 이경순
- \* 5월 헌금위원 : 박종철
- \* 5월 주방봉사 : 1, 7구역

생명의 말씀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나를 증명해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소리를 듣는다.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으며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잡아채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0:25-28/헬라이어 직역성서)

배 음 주 일

오후 1시 30분 소예배실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 ..... 함 께

수 요 기 도 회

오후 7시	인도 : 송 혁 목사
찬 양	함 께
기 도	조정순 권사
성 경 봉 독	시편 119:169-176(구약 896쪽)
말씀선포와 기도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축 도	송 혁 목사
다음 주 기도 - 김은주 집사	

일 상 기 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목상 본문	15일(목)	에스더 3:7-15
12일(월)	에스더 1:1-22	16일(금)	에스더 4:1-17
13일(화)	에스더 2:1-18	17일(토)	에스더 5:1-14
14일(수)	에스더 2:19-3:6	18일(주일)	에스더 6:1-13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 난 주 일 말 씀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요한복음 21:1-19)

[성서일과표/사도행전 9,15-20, 시편 30,1-12, 요한계시록 5,11-14, 요한복음 21,1-19]

저는 새달을 시작하는 첫날 여러분께 “어린이들이 파아란 하늘 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는 세상을 그려봅니다.”라는 인사를 보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아동문화가 어효선 선생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는 동사에서 떠올린 기도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아름다운 노랫말 앞에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파아란 하늘도 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의도 문법’이라는 표현을 아시지요? 여의도 문법은 정치인들의 화법을 예뻐려 표현한 것으로, 천연한 말버릇을 의미합니다. 천연(天然)이란 시치미를 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거짓말하는데, 그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타락은 언어의 타락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지극히 물질적이고 속물적인 세계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한 정치 매체는 ‘트럼프의 아름다운 세상’ (Beautiful World)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단연 ‘beautiful’ 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으로 일자리와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너무 아름답다”고 했고,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천연스레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인간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은 힘과 욕망의 다른 아닙니다. 사실은 트러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가장 잘못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흔히 사용하는 단어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광주를 찾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사대라고 불러 왔습니다. 국가적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폭도 취급을 받았으며, 진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엄청난 사건을 단순한 사대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사랑에 관한 집요한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는냐고 묻자, 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돌보아달라고 부탁하셨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와 베드로가 같은 대화를 세 차례나 반복했다고 전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세 차례의 문답은 모두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짚어야 하겠습니다. 성서 기자는 ‘사랑’, ‘양’, ‘돌봄’을 의미하는 단어를 두 가지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헬라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따라 같은 단어의 사용을 피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근심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근심’은 불안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은 그가 근심, 즉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헤아릴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사용하지 않나요? 사랑은 자칫하면 자기 연민, 자기중심적이기 쉽습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월 사랑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 점점 멀리 확장된다는 ‘사랑의 질서’ (ordo amoris)라는 신화 개념을 빌려와 ‘미국 시민 우선’ 논리와 반이민 정책을 정당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다음이 이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성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일입니다.

언제나 자신에 찻던 베드로를 깊은 성찰로 이끄신 주님은 그의 근심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돌보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성서 언어를 전공한 충민원 목사의 개인 번역으로 들어 볼까요? “사랑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도 사랑해 줄래요? 내가 돌봐준 양들을 이제 당신이 먹이고 재워 줄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도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주님의 양을 돌본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이며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을 까요? 넘어지게 할까요?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부탁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고난은 땀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빠른 대답이나 확신이 아니라, 베드로의 근심이 아닐까요? 살롬.